

# 예 배 순 서

**예배의 부름**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이 즐겁고 희망찬 날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상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 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   이**

**목        도**      ..... **시 118:1(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 찬 송 가 550 장

**1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2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다   같   이**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3절**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4절**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성 시 교 독**      ..... **새 해(1)** .....      **다   같   이**

인도자 :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회   중 :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인도자 : 그것들은 다 옷 같이 낡으리니 의복 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회   중 :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인도자 :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회   중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인도자 :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회   중 :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인도자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같이 :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도자 :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같이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대 표 기 도**      .....      **가   축   중**

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요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설명절 주간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물질의 궁핍함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게 하옵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가 대유행이지만 설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고 큰 기쁨과 행복이 깃들이게 하옵소서. 새해 첫날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 여호수아 24:15 ..... 인 도 자

**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말        씀**      .....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      **인   도   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 참으로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우리 가정에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지길 소원합니다.

### 1.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장 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태어남으로부터 죽음 사이에는 언제나 선택이 존재한다.” 맞는 말입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일들에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이며, 또한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인가?’라는 것입니다.

### 2.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의 사역의 말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마쳐갈 즈음이었습니다. 광야의 삶을 마치고, 정착하여 안정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왜 하필 오늘 택하라고 종용할까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 선택의 결과가 오늘이듯이 오늘 선택의 결과가 미래의 내 모습입니다.

### 3. 오늘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운데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번만 날 도와 주면 될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토착신이 우리에게 안녕과 평안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없어질 헛헛한 것, 영원하지 않고, 유일하지 않은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 일은 과거로 멈추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바꿉니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부터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시작합시다.

기 도 ..... 인 도 자

하나님 연약한 저희이지만 지금까지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가정이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걸어나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올 한해도 주님의 품 안에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 송	1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같이
	2절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3절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후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 기도 문 ..... 다 같이

예배 후 교제 (새해 인사 및 덕담 나누기, 가족놀이)

설날 감사예배 지침

정월 초하루인 설은 '원단'(元旦), '세수'(歲首), '연수'(年首)라고도 부르며, 한자로는 '신일'(愼日)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간다."는 뜻이다. 묵은 1년은 지나가고 설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데, 1년의 운수는 그 첫날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던 탓이다. 설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미리 마련해 둔 새 옷으로 갈아입는데, 이 새 옷을 설빔이라고 한다. 아침에는 가족 및 친척들이 모여들어 조상의 은덕에 감사를 드리고, 어른들께 순서를 따져 세배를 드린 후에 떡국(歲饌)을 먹는다.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을 주며 덕담을 나누고, 가족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한다.

- 지침

- 1) 가족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둘러앉는다.
- 2) 가족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 3) 가족 가운데 어른이 예배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되, 서로 순서를 나누어서 참여하는 것도 좋다.

# 2022년 설날 감사 가족 예배 순서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한교회**